



세계유산도시지구-OWH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용 보유한 도시들이 모여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Heri Tag

세계유산도시지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 054.779.6913
 🌐 www.owhcap.org
 📌 www.facebook.com/owhcap1

Heritage Cities Tag Heri Tag

OWHC-AP MAGAZINE VOL.05

OWHC-AP

OWHC-AP MAGAZINE
헤리태그 Vol.05

Heri Tag



ISSUE

제14차 세계유산도시지구 세계총회

세계총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디지털 헤리티지 / Colors of Asia
 세계총회 Tip+

공간 IN

도시의 오래된 성벽을 걷다

카르카손 구 시가지
 아시시 성곽 / 수원 화성
 예멘 시밤



From. HeciTag



Heritage + Cities + Tag

세계유산 도시들과 소통하다

= HeCi Tag (헤시태그)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우치 매거진

「HeCi Tag」는 세계유산도시의 다채로운 모습,

당신의 삶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계유산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우치가

함께하겠습니다.



The 14th World Congress of the OWHC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10.31 TUE - 11.03 FRI 2017
Gyeongju, Republic of Korea

Heritage and Communities:
Tools to engage local communities





06

ISSUE
제14차 세계총회

- 08 세계총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 12 디지털 헤리티지
- 14 Colors of Asia
- 16 세계총회 Tip+
- 18 전문가 칼럼

- 22 OWHC-AP
- 24 YOUTH&HeCI

30

IT CITY
암스테르담, 너는 자유다



36

FOOD ROAD
만두로드



42

STORY
시간의 손길로 사람과
품은 도시, 경주



46

East & West
안동 병산서원 안대루와
산티아고데콜롬포스텔라 대성당 관광

50 신비한 유산사진

HeCI Tag



52

공간 IN
"그저 것은 것" 만으로도
충만한 성과도시



64

1%의 특별함
나의 세계유산 탐사기

66

전통의 역사
전통의복, 역사와 가치관의 정체성을 갖고
색과 선의 미적 가치가 진화한다

72

Classic+
예근 율레, 어머니의 고향
체스키 크룸로프를 그리다



74

TRIP to
무양프라방 느리게 걷기

83

구독신청
헤시태그 구독신청 방법 게재



세계유산도시지구 아태지역사무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헤시태그는 세계유산도시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공간'을 넘어 '공감'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중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Vol.05 표지_경주 양동마을 독막당

발행처 세계유산도시지구 아태지역사무처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번 호 054.779.6913

기획·취재·편집 한국에드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42)
Editor in chief. CEO 박은경
Editor. 박성하, 서순정
Designer. 이고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The 14th World congress of the OWHC



제14차 세계총회의 주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이다.

본회의의 전문가워크숍과 시장단 회의의 모든 카테고리는 이 주제 안에서 변주된다. 지금까지 많은 문화유산정책들이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개로 보존과 활용의 방향이 결정되고,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물리적 성격으로만 구분 짓고 관리범위가 경계 지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비전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결과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적 혜택이 실제로 세계유산지역의 거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는 제1회, 제2회 아태지역총회를 치르면서 화두로 삼은 세계유산과 시민의 공존에 대해 드디어 2017년, 제14차 세계총회를 통해 전 세계 회원도시 시장단 및 석학들과 함께 우리에게 던져진 주제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번 경주 세계총회는 전차 대회들과는 다른 색깔을 지녔다. 그 첫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라는 점, 둘째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박람회 형태의 차용한다는 점이다. 일단 본회의 외에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그동안 국내 회원도시 소재 고등학교 세계유산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함께 했던 여가동무 캠프가 세계총회 기간 중에 열리는 유스포럼과 만난다. 청정목록에 올라있는 유산을 보유한 도시들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된다.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전, 세계유산도시 홍보관 등이 회의가 열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전차 대회 때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저기 키워드는 하모니.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역주민들이 주변인이 아니라 총회를 함께 개최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도시들이 함께 개최한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유려하고 눈부신 색채의 하모니로 여러본 앞에 펼쳐진다. 🌿

제14차 세계총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첫 번째, # 사람



세계총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은 언제나,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을 내린다. 하지만 완벽한 무대를 위해 조명 뒤에서 뛰어다니고, 가슴 졸이며, 밤을 새워간 사람들에게 대한 화답은 놓치지 십상이다. 여기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혹은 총회 기간 중 단 몇 분 동안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소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담아왔다. 총회가 끝난 뒤, 기분 좋은 피로와 달콤한 휴식에 몸을 푹눕힐 그들에게 미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신라의 선물, 세계총회를 물들이다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

"10월, 신라 군악대 만나러 경주로 오세요!" 신라의 고취대는 1350여 년 전 신라시대에 국가적인 길행사와 사신 영접 등 중요한 행사에 활용됐다. 경주 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는 그 옛날 신라시대의 화려했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해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큰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신라고취대에 입단한 박선미씨는 고취대에서 생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태어난 곳도 경주, 집도 경주. 쉽게 말해 저는 이곳의 '토박이'예요. 저에게 신라고취대는 자부심입니다. 천 년 전 신라의 음악을 재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고 경주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죠." 박선미씨에게 세계총회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그만큼 남다른 각오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 고취대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나는 지금 천 년 전의 신라에 와있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몰입해서 공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고취대에서 대각을 맡고 있는 탁정구씨는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하모니를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국내 관객들에게도 생소한 악기들이 고취대 공연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맡은 '대각' 역시 그중 하나일 텐데요. 단순하면서도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가 우리 고취대 음악의 매력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연령층의 관객들이 오시는 만큼, 세계총회 무대는 더욱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전공한 김수연씨는 신라고취대 활동을 하면서 사라져가는 소리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신라고취대의 공연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라고취대 #개막식공연 #신라군악대



페루에서 경주까지, 하이코의 그녀

화백컨벤션뷰로 담당자인 조한나씨는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행사 유치가 확정되면 회의가 경주에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각종 장소를 주선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준다. 그녀는 제14차 세계총회를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페루 아레키퍼 현장에서부터 고군분투했다. 갑작스런 항공결항에다 추하를 분실까지...현장 유치전 전날 극적으로 짐이 도착해 준비했던 한복을 입고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스페인 코르도바, 브라질 올린다 등 막강한 도시들과 치열한 유치 경합을 펼쳤죠. 전차대회 때부터 꾸준히 출마해온 스페인 코르도바와의 경합 끝에 단 두 표 차이로 우리 경주시가 총회 유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감회란! 정말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세계총회 개최장소인 하이코는 신라시대 유물을 시각화한 특색 있는 내·외관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3,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컨벤션홀을 포함해 12개의 회의장과 600평이 넘는 실내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인 만큼,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고 싶어요. 또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는 해외 참가자분들이 경주라는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유치경합



조한나

손재민

꿈 많은 소년, 세계와 마주하다

OWHC-AP 청소년연합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OWHC회원도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내 동아리 모임이다. 역사·문화 탐방, 세계유산 홍보, 아케동무 캠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 보호 및 세계유산도시지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손재민 학생은 지난 2016년부터 경주고등학교 OWHC-AP 청소년연합회를 이끌어오며 세계유산도시 답사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총회 개막일에 예정된 Youth Forum에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저희 경주고등학교 OWHC-AP 청소년연합회는 일반적인 문화유산 답사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고택체험, 세종대왕 아가행렬 참여 등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해 더 공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계총회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소개하고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경주고등학교 #OWHC-AP청소년연합회 #오정연



마농 아프레이이

보편적 가치, 함께 이야기해요

"학술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험도 풍부한 전 세계 회원도시 소속의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8명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출신 도시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지리적 배경에 기반 한 다각적이고 폭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해 줍니다. 세계유산도시지구 세계총회의 학술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학술위원회 위원장인 마농 아프레이이는 프랑스 출신으로, 현재 캐나다 퀘벡 본부사무처 소속이다. 이번 총회의 학술회의 기조연설자, 발표자, 발표논문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학술위원회의 수장으로, 그녀는 남다른 책임감으로 이번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술회의 날은 회원도시들의 다양한 사례발표로 시작합니다. 시장단 워크숍을 통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자신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녀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저 이번 회의 참가자들이 경주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름의 성취감을 얻고 각 자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 "경주를 찾은 참가자들은 분명 놀라운 경험과 인간적 교류, 다양한 지식을 얻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세계유산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인본주의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보편적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계유산도시지구 #프로그램매니저 #세계총회학술위원회위원장



작은 나눔이 따뜻하게 빛나길

지난 5월부터 세계총회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문진실씨. 남다른 열정이 돋보이는 그녀는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됐을까. PCO(국제회의 전문운영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해 보고 싶었어요. 마침 고향인 경주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열근 그 회의를 잡았죠.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사회생활의 녹록함이 묻어있는 아무진 대답이다. 커리어와 결혼, 곧 다가올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까지. 이 때문이면 자신이 걸어온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누구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시기이다. "어릴 때부터 밖 온 것이 왕릉이고, 침성대예요. 어릴 가나 문화재가 크긴 작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유산도시지구 세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익숙했기 때문에 몰랐던 유산과 시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녀와 함께한 이재형씨는 경주문화재단의 예술 공연팀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총회의 다양한 문화공연준비에 손과 발이 되어 활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역할이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대신 할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청고하고 커다란 자동차를 떠올려요. 길이 아무리 근사해도 자동차 안의 조그마한 부품하나가 고장 나거나 빠져거리면, 제대로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되요. 저 같은 사람들이 세계총회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는, 꼭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두 젊은이의 가슴 없는 미소만큼이나 세계총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순간이다. ㉞

#자원봉사자 #스텝 #열정 #나눔



이재형

문진실

제14차 세계총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두 번째, # 기술과의 동행

가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

신비하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계. 세계유산 분야도 이 세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총회 기간 내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헤리티지 엑스포는 낯설지만 매력적인, 새로운 차원의 현실로 당신을 안내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인류의 유산들이 자연재해, 테러,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해 훼손되거나 아예 파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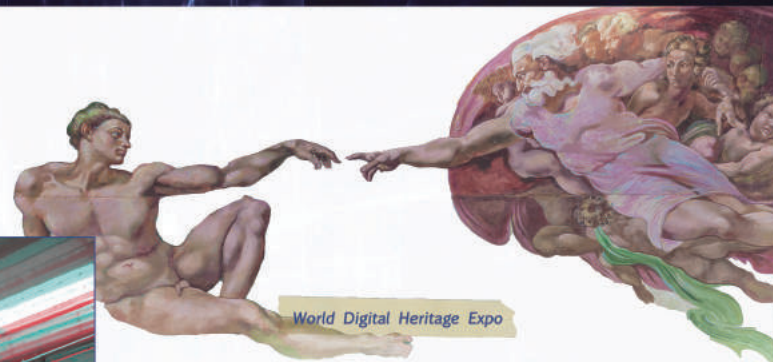
우리는 먼 우주의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세계유산들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로 유산들을 저장해 훼손이나 유실에 따른 복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복원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원이든,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홀로그램이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북한 개성의 만경대, 이집트 피라미드 탐험... 평범한 도시민인 우리가 평생 한번이라도 가볼 수 나 있을지 의문인 세계유산들이다. 이 귀한 경험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지속 가능한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 디지털 헤리티지 엑스포에 당신을 초대한다.



Ready to 2017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는 디지털 헤리티지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업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디지털 헤리티지 심포지엄'에서는 도시별 사례발표를 통해 헤리티지 산업이 흘러온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가을에 열린 '제2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부스를 운영해 세계총회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제1회 대한민국 디지털 헤리티지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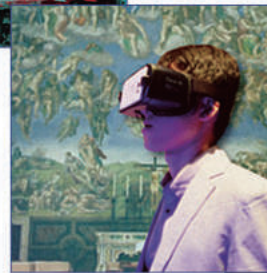
World Digital Heritage Expo

01 미켈란젤로 프로젝트

미켈란젤로는 오늘날 통용되는 융복합 콘텐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예술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화가이다. 미켈란젤로 VR을 통해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 기법을 통해서 성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그린 천지창조와 그 외 다수의 르네상스 시대 걸작을 마치 현장에 와서 보는 듯한 몰입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콘텐츠이다.

02 Be the Hwarang(화랑) 체감형 실감콘텐츠

화랑은 신라 진흥왕대에 인재 등용을 위해 만든 청소년 수련 조직인 화랑도의 지휘관이다. 'Be the Hwarang(화랑)' 체감형 콘텐츠는 화랑의 지휘관이 되어 경주 첨성대 광장을 배경으로 우주생명체와 전투를 벌이고, 전투에서 승리하면 황룡사 9층 목탑이 재건되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Colors of Asia

문화의 향연

제14차 세계총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세 번째, # 다채로운 공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유치한 세계총회, 경주시는 그 벅찬 감격을 아태지역 회원도시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문화'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뭉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예술 공연이 이곳 경주에서 펼쳐진다.

이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동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에서는 회원도시 홍보관이 함께 열린다.

홍보관은 시민들이 세계유산도시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고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친근한 콘셉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설무대에서는 아태지역 전통예술단의 공연이 매일 펼쳐지고, 회원도시에서 마련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 관람객뿐만 아니라 회의 참가자들에게도 딱딱한 회의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갈 듯하다.



처용무
0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는 한국 설화의 주인공으로 신라시대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인간 아내를 탐하는 역신으로부터 아내를 되찾기 위해 춘 것에서 유래했다. 아태지역 예술단 공연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처용무 공연자 중에는 놀랍게도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인 종로구의 김영중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으니 눈여겨보자.

아시아의 부채
02

회원도시들이 그들만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지닌 부채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부채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흐르는 유려한 곡선과 열고 닫는 춤사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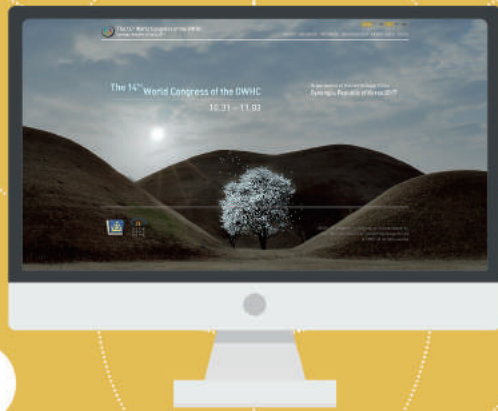
도시 속의 사자
03

한국의 북청사자춤은 매체를 통해서나 직접 보거나 최소한 한 번쯤 들어봤을 터. 이 사자춤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다고 한다. 그 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번 세계총회에서 이 도시의 사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과연 세계유산도시에게 사자란 어떤 의미로 공존해 왔던 것일까. 민속춤을 통해 표현되는 사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자. ㉞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본회의에 참가하려면 총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참가자격은 각 회원도시 시장 및 관계자, 관련 전문가, 전문가, 혹은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가능하다. 회원도시 외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참가자는 모두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총회로 오시는 길



PROCESS



Step.1 세계총회 홈페이지 접속
<http://2017gyeongjuowhc.org>



Step.2 온라인 등록신청서 작성



Step.3 참가비 결제방법 선택



Step.4 등록 및 결제완료

- 본 행사에서 본인이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그 언어로 등록신청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단, 스페인어와 불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세션에는 통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등록신청서 기입 시, 특이사항 정보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숙박 및 항공정보가 정해지면, 등록확인 랩에서 추가정보 작성하셔야 합니다.

CONTACT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추진위원회
T. +82-2-2152-5024 E. info@2017gyeongjuowhc.org

한눈에 보는 세계총회

구분	10.30(월)	10.31(화)			11.01(수)	11.02(목)	11.03(금)	
		개막일			총회1일차	총회2일차	총회3일차	
08:00-09:00	참가자 영접	참가자 등록			참가자 등록			
09:00-10:00					학술회의	차기 이사회 후보자 연설 및 차기 총회개최 후보지연설	OWHC이사회장 후보 연설	
10:00-11:00						커피브레이크		
11:00-12:00	전문가 워크숍	Youth Forum	자넬리스트 워크숍	잠정목록 워크숍	신라학 국제학술 대회	장 폴 릴리에 유산상 수상 및 OWHC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시장단 워크숍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세션	
12:00-13:00	이사회오찬					OWHC 사업보고		
13:00-14:00						오찬		오찬
14:00-15:00		OWHC 정기이사회			오찬			
15:00-16:00						지역사무처별 회의		
16:00-17:00		버сий동 (호텔 → 월정교)			학술회의		시장단 총회	
17:00-18:00	참가자 등록	개막식				이사회 투표 및 커피브레이크		
18:00-19:00								차기 총회 주제 선정
19:00-20:00		버сий동 (월정교 → 호텔)			경주시장 주최 만찬	경주시의장 주최 만찬	폐막식 및 환송만찬	
20:00-21:00	라테일 리셉션	경북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21:00-22:00								





유산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의 연결고리 찾기



에일린 올바일리

독립 컨설턴트인 에일린 올바일리 박사는 15년 넘게 영국과 전 세계를 돌며 역사적 건물 및 지역과 협업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보존 및 유산관리 분야를 전공했으며, 『건축을 보존(2008)』을 집필한 뒤로 보존 이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11월 3일에 열리는 시장 워크숍의 대표 연사로서 회원도시들에게 깊은 경험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유산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그 도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거라는 믿음 때문이지요. 심지어 문화유산을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지하는 많은 연구와 논문도 나와 있죠. 물론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관광산업이 분명 중요한 경제적 영역이 될 수 있지만, 그 것 때문에 지역의 원래 가치가 훼손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로 인해 원래 그 곳에 거주하던 주민의 삶 자체를 주변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의 관광산업 성장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여전히 교통 체증, 주차난, 소매상점의 수적 우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1970년대부터 세계유산도시의 관광산업 붐이 일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인구의 생업이 대부분 관광업과 서비스업으로 대체되었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싼 물가와 낮은 수준의 편의시설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어쩔 수 없이 터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세계유산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곳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유산도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번두리로 몰아내는 관광업의 압력과 유적지 지정 때문에 받는 다양한 제재들로부터 적당한 보상을 받을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산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 지역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생동감과 유기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즉 단단한 지역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유적의 관광영수 개발은 유럽의 유명한 역사 마을의 특징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속에 이러한 고립적인 방식은 점차 뚜렷해졌죠.

여기서, 관광업의 경제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봅시다.

- 1) 관광업의 이윤 상당 부분이 외부 기업에 의해 장악됩니다.
- 2) 지역 내에 존재했던 기존 상점들은 노후와 자원이 우세한 외부 유입 상점들과 경쟁관계에 놓입니다.
- 3)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저임금의 일자리가 주로 생겨납니다.
- 4) 관광지 주위 지역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 1) 역사적인 유적지는 절대 유적이 속한 도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 2) 도시와 도시는 나름의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시대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므로 특정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3) 사회적 구조도 도시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아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유산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도 사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것

유산은 특정구역의 물리적 영역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민의 삶의 방식에 녹아있는 DNA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산의 보다 크고 넓은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유적지의 매력을 높이고 여행객의 체류시간을 점차 늘려 이로 인한 혜택이 넓어지도록 합니다.

소비형 경제와 연계된 생산형 경제를 고려할 것

관광업은 서비스분야의 경제를 주로 창출하여 높은 수준의 의존도와 불안정성을 지니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성과 테러위협 등은 더욱 지역주민들의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제를 다원화시키는 것은 지역을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취약성에 대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동네는 작은 규모이지만 창조적인 스타트업 사업을 잘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욕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며, 지역 당국 차원에서 지지받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비단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지역회사를 위한 보조금, 집세의 통제, 스타트업 보조금, 사업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조, 교통 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 본연의 가치를 토대로, 사회자본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다

단순히 역사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지역사회나 살아있는 유산으로 묶여져 분류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역의 무형문화나 전통공예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면 오히려 그 지역의 자생적인 정체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유산이란, 세계유산도시에서 장애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영감의 출처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처럼 지나치게 발달한 관광업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 연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요. 지역의 무형문화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역사지구에서도 혁신을 향한 욕구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역사지구'라는 꼬리표 없이 순수하게 '사람 사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지역주민들이 소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사업 클러스터와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고, 지역의 연대감, 변화하는 정체성, 요소 간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새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키워내어 유산의 보호와 보존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역적 통찰력을 통해 크게 생각하는 리더십

세계유산도시의 운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특정 지구에 대한 운영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가시적인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참여를 강조하는 계획과, 주민과 소통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수한 정책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이나, 여기서 비전 있는 리더십이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비전 있는 리더십이란, 혁신적이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빨리 눈치 챌 수 있어야 하고-성공적인 프로젝트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적인 필요성은 성장하기 마련이며, 시대가 변하면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공동된 비전을 기본으로 한 강한 리더십은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금전적인 것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활환경, 안전함, 각 요소간의 접근성 역시도 사회적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성공적인 정책은 관광객에게도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 진화하는 도시의 역학은 변화에 맞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견고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고리, 문화경제적 다원성, 접근 가능성 및 연결의 용이성 등을 도시에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도시-세계유산도시는 단지 잘 보존된 관광도시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㉞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리처드 맥케이 교수

리처드 맥케이 교수는 Mackay Strategic의 창립자 겸 대표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컨설팅 업체인 GML Heritage Pty Ltd의 공동 창업자였으며, 최근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션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문화 고문을 역임했다. 제14차 세계총회에서는 학술의 날과 시장 워크숍에서 좌장을 맡는다.

많은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산구역은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겐 전달하고 보존함에 있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역할도, 전통적인 가치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상담, 관계 조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협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된 고토비전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유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보존과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의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관리주체 및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광업은 가난을 퇴치하는 도구인 동시에 도시의 변용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은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현재의 관광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모색하고자, 호주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유산과 관광, 지역주민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원주민과 유산 관리

호주는 원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세계유산은 '공동관리'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토착민들에게 유산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관리를 위해 정부가 그들로부터 그 지역을 임대료를 지불하여 영구임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의 임대료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물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 카카두 국립공원

132,000헥타르가 넘는 광대한 국립공원인 우물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은 우물루와 카타 추타라고 하는 거석군이 있는 지역이며, 위에 언급한 '공동관리'라는 형태로 1985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세계유산입니다. 원주민인 아낭우 부족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살아있는 전통, 사상, 유산으로서의 탁월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아낭우 부족들은 이곳의 토지와 문화유산 경관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관광업의 앞선 가이드, 숙박업,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두 국립공원 역시 호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땅이 원주민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50,000년 이상을 살아온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은 이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과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들 중 하나입니다.

카카두 국립공원의 원주민 관련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는데, 더 이상의 개방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관리자 측 모두 회의적인 편입니다. 이 곳의 유산관리는 아직 '인간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주민과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과정과 부의 분배과정에서의 참여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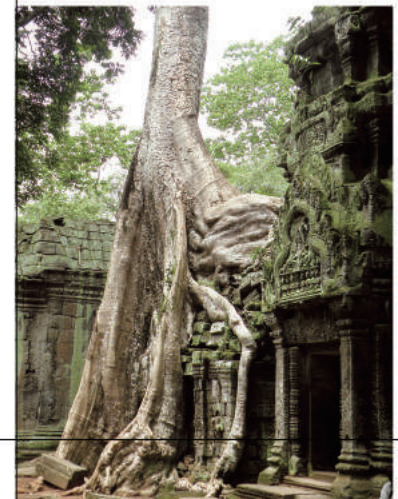
더 록스는 시드니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완충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의 유산지민의 상징이며, 여러 세대를 걸쳐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존재해 왔습니다. 더 록스를 위한 유산관리계획은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거주자들과 관리자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설득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18세기~20세기의 주요한 흔적들을 보존하고, 거주자들의 삶을 부양하는 사업들을 포함하면서 소중한 인류 경험의 가치를 창조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들의 역할은 이 곳이 인공적인 관광지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장소에서 살아있는 커뮤니티라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신호를 제공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더 록스를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양코르, 캄보디아

수세기 동안 크메르문명의 중심이었던 양코르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세계유산입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뒤 점점 증가하는 관광객과 개발에 대한 압력은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호주와 유네스코 캄보디아는 '양코르 유산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코르의 유산관리의 위험을 판단하고,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의 경험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동시에 신성한 장소이고 국가의 상징인 이 곳이 크메르 사람들에게 기호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세계유산의 명성으로 인해 관광업이 발달한 것지만 그 수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채택된 '양코르 관광관리계획'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 예로 '바라이' 단체 자전거 투어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라이'는 양코르 지역 관리자에 의해 최근 복구되어 채워진 큰 호수입니다. 호수가 다시 물로 채워지면서 고대 수문관리 체계와 전통 사원의 활용, 당시의 신년과 관행을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바라이 사원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이 새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단체의 요구와 열망 등을 통합하여 유산 보존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의 크메르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문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관광영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은 관광 또한 문화적 가치의 전통적인 주인이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민들의 권리와 맞물려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보존은 지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문화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뛰어난 유산은 모든 인류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여져야 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를 인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27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찾아간 세계총회 홍보단

STARRY NIGHT OF SILLA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간 위원회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현재 총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21개국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올해도 총 33건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진행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경주세계총회 홍보를 위해 아태지역사무처가 함께 했다.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렸다. 아태지역사무처는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홍보단을 꾸려 세계유산의 등재 심사와 확정이 이뤄지는 바로 그 현장에 참석했다. 사이드이벤트와 경주 세계총회 홍보를 위해 홍보팀은 개막식 첫날부터 한복을 착용하여 주변의 이목을 끌었으며, 회의기간 내내 한복과 신라복을 착용하고 홍보부스에서 세계총회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사이드 이벤트로 열린 'Starry Night of Silla'는 경주 세계총회 홍보를 위해 마련한 칵테일 라셉션으로, 한국국악협회 경주지부 국악인들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다소 긴장감이 감돌던 회의장과,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경직되어있던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벤트는 가음의 단비처럼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내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칵테일 라셉션은 신명나는 농악 무대를 시작으로 산조춤, 피리와 대금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최양식 경주시장과 데니스 리카르도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의 경주 세계총회 홍보 연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경주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다 같이 건배를 하고, 소고춤과 농악 선율이의 현란한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겨 환호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한 쪽 코너에 마련된 신라복 체험을 즐기며 칵테일파티의 여흥을 즐겼다.

멋지네요. 한국의 전통음악과 공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아시아 테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유치한 세계총회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의 경주에 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군요. 세계총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 프랑스스코 로페즈, 멕시코 세계유산사무소 소장 -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열린 사이드 이벤트 중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오신 분들 모두 최고였다고 말하는 걸 듣고 행사 현지 매니저인 저도 뿌듯했습니다.
분명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실 거라 믿어요!

- 다리야 글로우미야,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직위원회의 부대행사 담당자 -





청춘, 세계유산으로 소통하다



제6기 청년홍보위원들의 특별한 Tip!

1. 박승민 청년홍보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지역의 유산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간의 활동에서 특히 익산으로 답사를 떠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7기 위원들도 두 눈과 두 발로 현장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2. 박지혜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모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능동적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특 튀는 아이디어도 공유해보고, 새로운 시도도 하면서 좀 더 풍성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3. 정서림 6기 활동 중에서 미륵사지 복원현장을 답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년홍보위원회는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배움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계유산도시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도시기구의 홍보에 앞장설 제7기 OWHC-AP청년홍보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활동을 이어온 6기 선배들의 특별한 조언과, 신입 위원들의 남다른 각오를 들여보자.



제7기 청년홍보위원들의 남다른 각오 한마디!

4. 백정은 세계유산은 선조들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집약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유산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되겠지만, 어떻게 관심을 이끌어낼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홍보위원회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김경희 어렸을 때부터 역사와 문화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착 되 돌아보니 어느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역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6. 임정현 역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청년홍보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청년'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에 SNS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좀 더 쉽게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계유산과 역사 문화 환경을 활용한 도시 재생

수원,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6기 청년홍보위원회
김인지, 박지혜, 윤미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략) 최근 도시계획의 변화된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부주도적, 하향적 방식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의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등의 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계유산을 도시 재생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역사도시들의 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세계유산 도시와 도시의 역사문화환경

(중략) 2011년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 역사도시경관을 새로운 유산의 유형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역사도시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역사성을 간직한 환경과 도시가 지닌 역사성이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 도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시를 가리킨다.

제2절 도시 재생

(중략)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 내 주요공간인 도심부는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며, 개발행위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은 상호 상반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 내의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기존의 역사문화 환경의 전통을 이어가며, 개선하여 발전시켜 도시재생을 한 사례로 국내외의 수원 화성과, 일본의 가나자와,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분석 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외의 사례에 대하여 법 제도 측면, 사업추진 절차, 주제별 역할, 정비체계 및 기준, 계획 요소, 재정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각 사례들의 계획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1. 한국 수원 화성



1. SUWON

수원 화성은 뚜렷한 건축목적과 정조의 애민정신을 담고 있어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상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수원 도시 자체의 인식과 함께 화성의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으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수도 한 꾸준히 증가했지만, 세계문화유산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제한 및 보호정책으로 인해 성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러 경제적 및 생활적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구 이탈, 상가경제 침체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환경은 낙후되어 갔으나 문화재 보호로 인한 여러 규제와 제약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동네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힘과 의견을 모았으며,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행궁동 마을 만들기’가 있다. 행궁동은 과거에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상가지역으로 자리했던 역사가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수원시가 신도시로서 발전을 이루며 지역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7년을 시작으로 행궁동 마을 만들기는 2010년까지 민간단체, 주민, 작가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되었으며, 한데우물길 공방, 옛길 살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상되고 시행되어 각기 다른 동네들의 특징도 살리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행궁동이 활기를 띄게 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동네에 공방, 작업장, 소극장 등을 만들어 지역주민 스스로 동네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책적으로 마을르네상스에 포함되며 수원시의 지원 및 협력을 받아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현재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 화성과 행궁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높이 살 부분이다.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드는 사업이기에 기본적으로 수원 시민들이 수원화성을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가지는 애정이 없었다면 지자체의 기관 및 학교를 옮기면서 부지를 확보하며 복원하는 일은 힘들었을 것이다. 고종에 기반한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치는 없을 수 없지만, 유산이 위치한 역사지구 주변에서 현재의 삶을 이어가는 지역주민들을 보살피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한 행궁동 마을 살리기를 통해 시민들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공동체 보존과 유산공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가까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가 문화유산과 공동체의 공생을 더 앞서 인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일본 가나자와

2. KANAZAWA

가나자와(金澤)시는 일본 중부 호쿠리쿠(北陸) 지방의 최대 도시로, 인구는 450,000명이며, 연간 관광객이 800만 명을 넘어지고 있는 일본 유수의 관광도시이다. 400년 넘게 지진이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에도시대부터 쌓인 전통유산과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가나자와가 평범한 역사도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이나 유명 테마파크, 온천과 스키장과 같은 일반적인 문화관광 자원 때문이 아니라, 문화예술 애호가와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문화예술에 중사하는 '창조계급'을 육성한 데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폐업한 방적공장 벽돌창고를 음악, 에코라이프, 아트공방과 같은 작업실로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졌는데, 저명한 아티스트를 초대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들을 기획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은 전문가 양성도 더불어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체험 그 자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 보기 드문 사례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지역 활성화 모델과 차별화되는 가나자와 시의 특징은 무엇일까?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도시발전 전략과 그 실행에 대해 살펴보면 가나자와시의 지구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관은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과 정책을 대한 연구를 하는 '가나자와 마치즈쿠리시민연구기구'이다. 가나자와의 마치즈쿠리에 있어서 '지역환경, 지역문화, 지역산업'이 상호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의 주체는 '시 행정, 산업계, 시민'이다. 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가나자와시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은 물론이고, 도시조례 제정에서 시작해서 문화행정,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의 주체는 '시민'이고, 재생의 방법은 '문화'이며, 그 가치의 수혜자는 '가나자와 시민'인 것이다. 또한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최대 강점은 가나자와의 창조산업을 주도하는 창조계급, 즉 장인들의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정신이 현대 문화산업으로 계승되고, 이 정신이 다시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정신으로 승화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시도한 도시 사례를 통해, 도시가 외관의 가시적 변화나 관광객의 일시적인 유입을 넘어서서 거주민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자들과 거주민들과의 소통이 절실하며, 문화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이 주체이고, 스스로가 창조계급이 되어 도시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도시의 재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충실히 정책에 반영할 때 지역 고유의 문화적 속성을 극대화 하여 문화와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3. 이탈리아 볼로냐

3. BOLOG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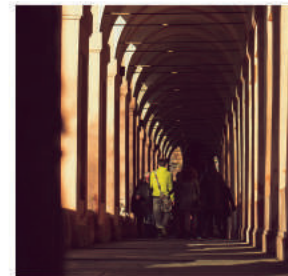
볼로냐 시는 일찍부터 단순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볼로냐 역사문화의 보존과 도시재생을 함께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소위 '볼로냐 방식'으로 불리며 역사적 거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창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볼로냐 시에서는 1955년 도시종합계획을 최초로 마련하여 1958년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볼로냐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존과 재생'을 모토로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민간에서는 볼로냐 시에서 1964년 지구주민평의회 제도를 이탈리아 최초로 도입하여 볼로냐 9개 지구에 설치한 뒤에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지구주민평의회 제도 의무화는 복지, 유아교육, 문화 스포츠 등 지역주민의 여러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도서관, 보육원, 양로원, 지역극장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분권 사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특히 볼로냐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한 '볼로냐 2000 프로젝트'는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옛 주식거래소는 이탈리아 최대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신했고, '밀라초 디 렌초' 등 중세 귀족들의 저택은 대규모 이벤트와 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로 복원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볼로냐는 국제아동 도서전, 체르사이에(타일 인테리어 국제전시회) 등 세계적인 컨벤션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박람회 도시로 발돋움 했다. 볼로냐 시가 직접 도심 재생 전략을 통해 공방형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시 시설의 물리적인 변화도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볼로냐 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 내의 역사 문화 환경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복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시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도시 재생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제적 개발과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반면 볼로냐의 경우 볼로냐만의 맞춤형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㉔

암스테르담

너는 자유다

계획도시.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부채꼴 모양의 반듯한 모양을 띄고 있다. 반원형의 구 시가지는 크고 작은 운하가 혈관처럼 뻗어있어 장관을 이룬다. 운하를 따라 도시를 감상하는 보트 투어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필수코스가 됐다. **죽음의 자유.** 이언 맥큐언의 소설 [암스테르담]에서 두 친구 클라이브와 버넌은 죽기위해, 암스테르담으로 간다. 한때 약속했던 고귀한 죽음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했지만, 고귀한 정신은 은데 간 데 없고 '자유'는 악용된다. 2002년 4월,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인력사를 합법화했다.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곳 암스테르담으로 모여들고 있다. 삶을 마감할 자유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흥동가,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면 시내 한복판에서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흥동가들 마주하게 된다. 이 도시에서 매춘은 정식 직업으로, 매춘부들은 '붉은 실'이라는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

그, 빈약이던 세상은 밝아진다



운하. '항구도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암스테르담의 운하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서 형성됐다. 운하는 구시가의 서쪽과 남쪽으로 뻗어있는 운하망과 구시가를 동글게 에워싸고 있는 중세 항구로 구성되었다. 운하를 따라 색색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고주택과, 관광명소들이 이어져 있어 걷는 것 자체가 낭만이 된다.

Proost! 맥주 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정작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다.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하이네켄 체임버는 1867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사용된 양조장을 박물관으로 개조해 이색적인 맥주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즉석에서 주조한 맥주 한 잔을 즐기며, 다채로운 전시물과 기념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독특하다.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 암스테르담. 그 반짝이면서 슬픈 민낯을 가진 도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memories mean more to us
than anything else
remembering anne frank



Amsterdam

bikes in Amsterdam

in Amsterdam walk along
canals with flowers in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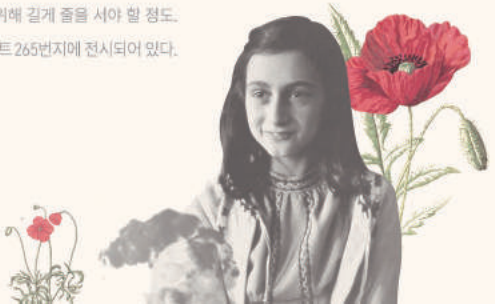
마헤레다리. 네덜란드는 나라 전체에 운하가 형성되어 있어, 배가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도시 곳곳에 배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개폐교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암스테르담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마헤레다리도 개폐교 중 하나이며, 저녁이 되면 운하를 따라 켜진 조명의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다.



튤립. 암스테르담에서 남서쪽으로 35km 거리, '유럽의 정원'이라 불리는 퀴켄호프 꽃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구근 화훼류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매년 봄, 700만 그루의 구근류 꽃과 총 800종의 튤립이 핀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상징 풍치가 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전망대의 역할과 동시에 공원 전체의 운치를 더해준다.



안네 프랭크.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안네 프랭크의 집은, [안네의 일기] 속 안네가 일기를 쓰던 곳이자 스토리의 배경이 된 장소이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프랭크 가족이 은신했던 분위기와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은,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아 입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할 정도. [안네의 일기] 원본은 은신처의 뿔집인 프린센호리흐트 265번지에 전시되어 있다.



Mandu Road

실크로드를 통한 밀의 이동, 그리고 만두의 재발견

★★★★

밀가루의 이동 경로가 되기도 했던 실크로드,
그래서 누들 로드라 불리기도 하는 그 길을
만두의 관점에서 새롭게 따라가 본다.

고대 인류가 밀가루로 빵을 만든 이후 국수를 먼저 만들었는지
만두를 먼저 만들었는지, 실크로드를 통해 만두가 새롭게
전파된 것인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국의 덩싱, 터키의 만터, 인도의 사모사, 베트남의 짜조 외에도
이탈리아의 라비올리와 칼초네, 스페인의 엠파나다 등이
우리나라의 만두와 뿌리 같은 음식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만두들을 살펴보면 오래전 고대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새로운 만두 로드를 개척하듯
세계 속의 만두를 탐험해 보자.

곡물을 알곡 상태로 조리한 음식을 입식이라 하고, 곡물을 빵아
가루를 내고 반죽을 하는 과정을 거쳐 조리한 음식을 분식이라
한다. 입식은 벼·쌀 문화권, 분식은 밀·밀가루 문화권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국수와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들은 밀의
재배가 용이한 북반구에서 주로 발달했다. 밀가루 음식의
탄생지에 대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메소포타미아
족, 오늘날의 시리아, 이라크 등을 포함하는 서아시아
지역을 만두의 발상지로 보는 주장에 의하면 아시아인과
수메르인에 의해 만들어진 밀가루의 가장 오래된 발명품을
빵으로 규정하고, 이 빵의 반죽에 고기로 속을 넣고 작은 경단
모양으로 빚은 '피델렌'을 만두의 기원으로 본다. 피델렌의
조리법을 보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피 위에 다진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밀가루 피를 올리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라자냐의 조리법과 매우 흡사하다. 터키와
아프가니스탄까지 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밀은 동쪽으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로,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밀의
전파는 실크로드와 일치하고, 이는 누들
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밀과는 다르게 국수의 전파가 실크로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하기에 여러 학설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친근한
만두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같은 것은
'삼국지' 때문이다. '삼국지'를 읽은 이들은
한결같이 만두의 유래를 제갈량과 연결한다.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수라는 강을
건너려던 참에 심한 풍량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신이 노한 것으로 사람의 머리를 바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얘기에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 생각해낸 묘책이 있었으니,
돼지고기를 밀가루 반죽에 싸서 사람 머리처럼 만들어
눈속임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진수의 '삼국지'가 역사서인 반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는
소설로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완전한 허구는 아니고 '삼국지연의'보다 200년 앞선 송나라
시절 '사물기원'에 실린 이야기를 제갈량과 엮어 끼워 넣은
것이다. 만두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로 교자의 유래에 관한
것이 있다. 사람 머리 모양의 만두는 샤오롱바오와 같이

피를 동그렇게 오므린 포자만두의 형태이고, 교자만두는
반달 모양으로 빚은 것으로 한나라의 의사 장중경이 추운
겨울 동상에 걸려 귀가 떨어져 나간 백성들을 위해 뜨거운
국물에 귀 모양의 만두를 빚어 함께 나누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에서 만두는 복을 싸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유래에서부터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휴머니즘이 바탕이 된 음식인 것이다.
만두의 유래에 대한 또 다른 학설도 매우 흥미롭다. 빵이
최초의 밀가루 가공 음식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두
번째로 탄생한 음식으로 국수가 아닌 만두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만두는 몽골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휴대용 인스턴트 음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어떤 등의 근거를 들어 국수보다 만두가 더

Mandu

이탈리아로 처음 전해진 것인지, 이탈리아에도 있던 또
다른 형태의 국수인 파스타가 중국의 국수와 교류하게 된
것인지는 어떠한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두와 국수가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었던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던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만두, 만터, 만투, 만터우,
문투 등으로 비슷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이나 명절에 즐겨 먹는 음식이라는 점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만두의 특징은 오랜 세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소통한 만두 로드의 증거이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세계 여러 나라의 만두를 살펴보면 거대하게
뻗어나간 만두 로드의 규모와 영향력을 새삼 실감한다.



딤섬

China

'딤섬 點心', 사실 딤섬은 만두의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점심과 같은 말이다. 홍콩을 비롯한 광둥 지방에서는 이 딤섬을 '암차飲茶'라고 하여, 차를 곁들여 먹었고, 이 때 주 메뉴가 되었던 것이 다양한 종류의 만두인데, 이제는 딤섬이 그 만두를 지칭하는 말로 혼용되고 있다. 탐구하듯 고른 다양한 딤섬들은 따뜻한 자스민 티와 살짝 데친 초이삼(채심, 중국에서 즐겨먹는 채소)을 반드시 곁들여 먹도록!



만티 Turkey

터키는 '동서양 문화의 접점이 되는 지역'으로 음식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에 우리나라의 만두처럼 만티Manti 역시 명절에 즐겨 먹는 음식이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 만티를 빚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모여 만티를 빚는 것 자체가 사고모임이나 여가활동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스탄불의 변화가 탁심 거리를 걷다 보면 만티를 빚는 여인들이 앉아있는 만티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곁들여 먹는 소스이다. 요거트소스, 사워크림sour cream, 으깬 마늘 등을 올려먹는데, 발효소스의 시큼한 덕분에 훨씬 미국적이고 견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사모사

India

인도의 국민간식 '사모사samosa'는 삼각형 모양의 튀긴 만두로, '홀라(삶은 콩에 향신료를 넣고 졸인 소스)'를 뿌려, 중국에서처럼 차와 함께 먹는다. 사모사는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만들어 훨씬 바삭한 식감이며, 향신료의 천국인 인도답게 반죽에 '지라(커민)'를 넣기도 하고, 속 재료에는 고추를 섞어 넣기도 한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플렉시테리언부터 비건까지 여러 종교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이기에 사모사의 속 재료도 단계별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만두 Korea

우리나라의 만두는 개성이 풍부이면서도 남부지방에서는 명절에도 만두는 빚는 풍습이 그리 보편화되지 않았었다. 따뜻한 남쪽에선 밀농사가 잘되지 않았던 탓이다. 그랬던 것 치고는 어만두, 전업만두, 송채만두, 편수, 규아상, 굴림만두 등으로 피나 소의 재료와 모양에 따라 꽤 다양한 형태의 만두가 전해져오고 있다. 만두의 보관에 있어서도 남쪽은 불리해서, 만두는 쉽게 상하는 음식이었다. 이에 특별히 여름철에는 애호박이나 오이, 소고기를 주재료로 넣고 빛은 편수와 규아상을 만들어 먹었다. 모양도 예쁜 편수와 규아상은 쉬이 상하지 않는 속 재료를 넣어 차게 먹는 여름철 만두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만두이다.



피에로기 Poland

피에로기pierog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러시아에서는 피로시키piroschki라고 불린다. 막강했던 몽골제국이 여러 차례 유럽을 침공하면서 남겨진 슬픈 역사가 있는 음식으로 지금도 폴란드를 여행하면 소량의 도시이자 현재 수도인 바르샤바보다 옛 수도 크라쿠프에서 전통적인 피에로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캐비어를 넣은 호텔 음식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독일식 양배추 절임)를 속 재료로 넣기도 하는데, 독일이나 러시아 못지않은 애주가의 나라인 만큼 폴란드의 피에로기는 술과 함께 먹어도 좋은 팀나는 인주이다.



짜조 Vietnam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짜조chả giò라는 이름은 베트남 남부에서 부르는 것으로, 다진 돼지고기 소시지를 뜻하는 남부지방의 사투리 같은 것이다. 밀가루 반죽 없이 물에 적신 반짱bánh trng, (라이스페이퍼)에 속 재료를 올리고 감싸듯 말아 튀겨내는 것이 특징이다. 튀기지 않고 그대로 먹는 프레쉬롤은 고이꾸은gỏi cuốn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 주로 쌀국수 등에 곁들여 먹는데 분짜나 분보씨오와 함께 먹는 궁합이 매우 좋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짜조는 베트남 피쉬소스인 느막담에 매콤한 고추를 종종 넣어 올리고, 레몬즙을 살짝 곁들여 찍어 먹는다.





여름에 먹는
차가운

우리 만두,
편수

Ingredient

만두피
밀가루 2컵, 물 7큰 술, 식용유 1큰 술, 소금 약간
만두소
소고기(우둔살) 100g, 건표고 2장, 애호박 1개, 양파 100g, 숙주 50g

양념장
간장 1과 1/2큰 술, 설탕 2/3큰 술, 다진 파 2작은 술,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Recipe

1. 밀가루에 분량의 소금과 식용유를 섞어 30분 정도 휴지시킨 후, 밀대로 얇게 밀어 사방 8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만두피를 만든다.
2. 소고기와 불린 표고버섯은 굵게 채 썰고 양념장으로 간하여 볶는다.
3. 애호박은 가운데 씨를 잘라내고 채 썰어 소금과 뿌려 잘인 다음 물기 짜서 팬 불에서 빨리 볶아 내고 한 김 식힌다.
4. 양파는 굵게 채 썰어 소금 간 하고 빨리 볶는다.
5. 숙주는 대체서 들기름 팬 다음 잘게 볶아 소금과 참기름으로 무친다.
6.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고 네 귀를 모아 마주 붙여서 네모지게 만든다.
7. 편수를 찌거나 삶아낸다.



싱그럽게
즐기는

바질페스토
라비올리

Ingredient

라비올리 반죽
강력분 100g, 달걀 1개, 소금, 올리브유 약간
속재료
새우, 달, 리코타 치즈, 블랙올리브
바질페스토
생바질 2줌, 생마늘 2줄, 잣 12g, 올리브오일 150g, 소금, 후추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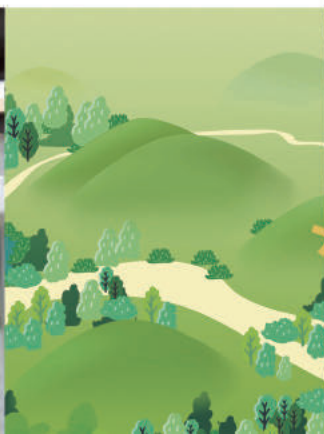
1. 강력분, 달걀, 소금, 올리브유를 섞어 30분간 휴지시킨 후, 반죽을 최대한 퍼서 파스타 기계에 넣고 얇게 밀어낸다. (파스타 기계가 없다면 밀대로 얇게 밀는다)
2. 속 재료를 적당히 다져서 잘게 섞고, 얇게 밀 반죽위에 조금씩 올린다.
3. 속 재료의 가장자리에 계란 풀을 바르고 반죽을 반으로 덮어 속 재료가 감싸지게 하고, 원형틀드로 찍어낸다.
4. 분량의 페스토 재료를 질구나 푸드프로세서에 넣고 곱게 갈되 되직한 질감이 유지되게 한다
5. 낙낙한 양의 물을 끓여 팔팔 끓으면 소금 간을 하고 라비올리를 넣어 7분간 삶아낸 다음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준다.
6. 바질페스토와 어우러지게 섞고 생바질을 올린다. 77



시
간
의
손
길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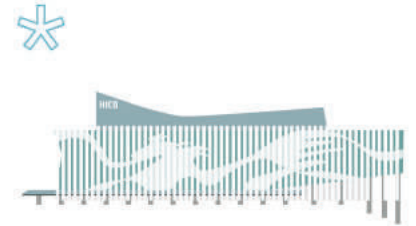
사람을
품은 도시, 경주

Gyeong ju



01
신라 천 년의 역사가 숨 쉬는 도시

약 26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경상북도의 소도시 경주. 대도시에 비해 인구는 많지 않지만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가치는 깊고 넓다.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무려 천 년이란 세월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은 신라 왕조가 겪어온 모든 흥망성쇠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도로는 넓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시와 시민들은 신라가 남긴 유구한 유산들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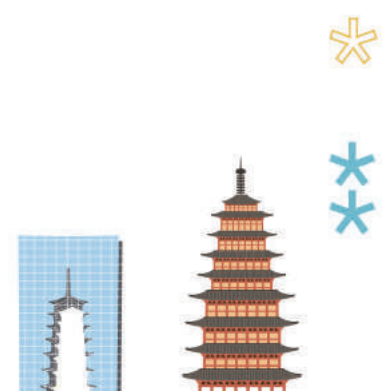


02
도시 속의 신라, 경주역사유적지구

지난 2000년 12월, 경주 곳곳에 자리한 신라시대의 유적들은 또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 유적들은 그 성격에 따라 5개의 지구로 나누게 되었는데, 신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신라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 황룡사지구, 왕경의 방어시설인 산성지구 등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의 가치를 널리 알린 것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03
추억과 기대가 공존하는 세계유산도시

오늘날 세계유산도시 경주가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는 '공존'이다. 문화재 인근에 높은 건물들 대신 소박한 한옥을 짓는 것도 도시의 오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 도시 안팎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선 일상이자 행복이다.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이 도시를 무대로 경주시민들은 오늘도 각자의 몫을 충실히 해내며 세계유산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라인들이 천 년의 세월 동안 남긴 삶의 흔적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에 겹겹이 쌓일 또 다른 삶의 결을 매만지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경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자 목표다.





건천대장간 대표 유종태씨

01

안녕하세요! 건천시장에서 '건천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종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대장간을 물려받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장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장간에서는 호미, 낫, 쟁이 등을 만들고 수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서는 '경주 칼' 하면 건천대장간을 모르는 분들이 없죠. 경주는 제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타지에서도 지내봤지만 이곳만큼 마음이 편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던 인간문화재 지정을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건천대장간 #대장장이 #2대째 #인간문화재 #오랜공



글공부 봉사자 송선화씨

03

경주시 황성동에 살고 있는 송선화입니다.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과 양북행복학습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경주로 왔는데, 언제나 참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황성동은 숲이 있고, 도서관이나 공원도 잘 갖춰져 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역사와 문화가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이죠. 제가 가진 작은 꿈은 나이를 먹은 뒤에도 이곳 경주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동화읽는어른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양북행복학습센터



신경주역 역무원 김진규씨

02

친절을 전하는 '미소천사'! KTX 신경주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승강장 고객 안전관리와 유실물 발생 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보고 즐길 것이 많은 경주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빠르고 안전한 KTX를 이용해 좀 더 풍성한 여행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주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많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경주역 #미소천사 #역무원 #경주여행 #천년고도



수제사프 재능 나눔 정동문씨

04

경주시 안강읍에 살고 있는 정동문입니다. 축사를 개조해 만든 작업실에서 나무사프를 만들어 생활이 어려운 지역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사프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수 만든 사프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이름까지 새겨서 완성된 사프는 경북 지역 아동센터와 분교에 전달됩니다. 각박한 세상에 따뜻함을 더해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

#기부천사 #안강할매 #수제사프 #따뜻한나눔 #품앗이



너무나도 다른 동서양 두 공간이 절묘하게 통하다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성당 광장**



동양의 서원과 서양의 광장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오히려 완벽하게 다른 공간인 듯 생각된다.
 그러나 두 공간을 모두 경험하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닮은 이미지가 교차되어 떠오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번 찾을수록 두 공간의 닮은 모습은 절묘하게 통한다.
 아무런 경계 없이 무한히 열려있는 두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쉽지 않은 길,
 그 끝에서 만나는
 열려있는 공간

서애 유성룡과 아들 유진을 기리는 병산서원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에게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원으로 조형미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병산서원으로 가는 길은 온통 비포장도로이다. 덕분에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닌 이상 병산서원으로 가려면 다른 언저리바람을 맞는 대로 일으키며 달려야 한다. 그렇게 도착한 병산서원은 배산임수의 풍수와는 달리 병산(屏山)이 서원 앞에 푸르른 병풍처럼 둘러서있다. 물론 서원 뒤로는 화산(火山)이 감싸 안고,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지만, 그 시대의 전통적인 건축 원칙에서는 벗어난다. 의미함을 풀고 정문을 들어서서 절대적인 균형미를 자랑하는 누각인 만대루와 마주하는 순간,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모든 원리와 원칙이 무의미해짐을 경험한다. 병산서원의 압권은 만대루이고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의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도 바로 만대루이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에 위치한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산티아고는 야고보를 뜻하고, 콤포스텔라는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낭만적인 지명이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낭만적이기보다는 고행과 수행의 길이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야고보의 길)', 그 자체로 고유명사가 되는 이 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야곱, 산티아고)의 무덤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로 그 루트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다.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스페인 북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프랑스길'이 가장 대중적이고 스페인을 남북으로 횡단하거나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는 코스 등 수많은 길라지고 다시 만나는 길을 보듯 한 달 남짓의 기간을 걷는다. 파울로 코엘료의 생명력 있는 문장 덕분에 중세 이후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이 길의 끝에서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성당(Catedral)을 만난다. 아니 대성당을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을 만난다. 만대루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광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개방성이다. 만대루는 거대한 자연을 향해, 광장은 웅장한 대성당을 향해 무한히 열려있다. 흔히 폐쇄적이라 생각하는 서원과 달리 누각인 만대루는 경계가 허물어진 열린 공간이다. 두 공간에 머무르며 서로 다른 두 공간이 개방감을 통해 밀도 있게 연결됨을 느낀다.



병산을 바라보며 서있는 만대루의 경건한 자태는 구조미학의 정석, 완벽함 그 자체다. 일곱 칸의 정면 누각을 처음 마주하게 된 순간의 감동은 영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쉬이 잊히지 않는다. 만대루는 병산서원의 심장이다. 독보적이고 압도적이다. 그러하기에 병산서원에 들어서서 만대루를 마주하게 되면 우선 오르고 보게 된다. 서원을 돌아보기에 앞서 만대루에 올라 앉아 하늘이며, 산이며, 강이며, 모래밭을 끝도 없이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된다. 굳더더기 없이 단정한 선비 같은 만대루의 누마루에 오르면 푸르른 병산의 일부가 되는 듯하다. 마른 먼지를 헤치고 달려온 길의 끝에서 만난 휴식 같은 공간이다. 만대루의 통나무 기둥에 기대어 앉아 저마디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풍경이 되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만대루에 흡수된다.

#2 머무는 사람도 풍경이 되는 휴식 같은 공간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의 광장은 커다란 배낭을 멘 순례자들이 그들의 표식이 되는 조개껍데기를 매단 지팡이를 짚고, 넓고 거친 모직 망토를 두르고 모여드는 공간이다. 대성당의 내부에 들어서서 는 것보다, 잠을 잘 숙소를 정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것은 광장에 들어서서 는 것이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광장의 돌바닥에 배낭을 베개 삼아 눕듯이 앉아 대성당을 바라본다.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의 이 광장은 숭고하면서도 자유롭다. 어느 광장처럼 카페나 레스토랑에 점령당하지 않았다. 오롯이 여정의 종착지에 다다른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시에스타엔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길 위에서의 고단함을 나누고 내려놓는다. 머무는 사람이 없는 광장의 풍경이 오히려 어색하다. 광장 위의 사람들은 광장의 풍경을 완성한다.

다른 듯 닮아 있는 두 공간은 그 모습 그대로의 존재가치가 충분하며, 나름의 사연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빛이 든 곳과 그늘진 곳이 묘하게 교차하는 그 공간에서는 사람도 풍경이 된다. 풍경이 되는 동시에 공간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활짝 열려 있는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맘껏 즐긴다. 자연스럽게 휘어진 만대루의 통나무 기둥과 울퉁불퉁한 채로 광장을 이루는 돌바닥은 버려진 오랜 시간을 증명하듯 반들거린다. 머물다간 이들의 시간과 흔적이 감동이 되는 것 또한 두 공간의 공감을 이끈다. 동양과 서양, 성리학과 가톨릭, 나무와 돌... 이토록 다른 두 공간의 절묘한 공감은 신비로운 한편 자연스럽게, 500년의 간극, 지리적 거리, 종교나 학문에서 기인한 가치관의 차이, 물리적인 재료의 이질감보다도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된 감정이 더욱 자연스럽게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매력적인 두 공간은 휴식 같은 종착지로 지금도 많은 여행자들을 쉬어가게 하고 있다. ㉞



도심 속 환상공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현대 건축의 출발점 '카사 밀라'와 미완성 걸작 '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 그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바르셀로나로 향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구엘 공원은 가우디가 건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다.



곡선은 신의 선이다

01

'직선은 인간의 선이며 곡선은 신의 선이다.' 가우디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작품을 곡선으로 표현하기 위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했다. 구엘 공원의 길고 긴 벤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불구불 높아진 벤치를 보며 우리는 정형화된 직각의 벤치의 딱딱함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을 느낀다. 혹자는 이 길고 구불거리는 곡선에서 뱀을 떠올리기도 한다. 곡선은 자연의 선이다.

자연을 품은 석굴

02

곡선을 사랑했던 가우디. 그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담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가우디가 찾았던 해답은 구엘 공원의 인공 석굴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을 주재료로 활용해 주변 나무들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했다. 석굴의 더 화려한 점은 내부에 있다. 내벽을 흙으로 만들어 석굴 위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해, 식물과 흙이 함께 공존하며 오랜 세월 석굴을 지탱해주고 있다.

파격적인 모자이크

03

가우디는 완성된 타일을 깨부순 뒤 다시 이어 붙여 건물을 장식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인부들에게 깨진 타일 조각이 있으면 주워오라고 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배달된 타일을 받자마자 산산조각을 내버려 운송업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타일이 붙을 자리를 일일이 지시하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떼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할 정도였다.

누군가의 집이었을

04

구엘공원은 원래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가우디의 오랜 친구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구엘(Eusebi Güell)이 영국 런던의 정원을 모델 삼아 이상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우디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60호 이상의 전원주택을 지어 스페인 부유층에게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 도중에 중단됐고 오늘날 선들 같은 세계유산으로 남게 됐다. 2

성곽 도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CASTLE WALL

중세에는 성곽 도시가 많아 성문을 통해 안팎이 소통하였는데 성곽 도시의 전경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드문 정도는 띄워야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래서 성곽 도시에서의 산책은 그저 성벽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는 성곽도시이지만 성벽의 재질과 모양도 다 다르고, 성벽 너머 보이는 풍경들도 같은 모습이 하나 없다. 성곽도시에서는 느리게, 느리게 성벽을 따라 걸으며 변하는 풍경들에 눈을 놓는 것이야말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IN

중세에 대한 로망을 완벽하게 실현시켜 줄 실존하는 성곽도시 카르카손

남프랑스의 중세 성곽도시 카르카손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곳으로 프랑스에서 파리와 몽 생 미셀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실제 카르카손을 모델로 하여 만든 보드게임 '카르카손'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다. 게임이나 등장할 법한 카르카손은 중세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다. 기사 문학을 동경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유럽의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중세 기사를 향한 로망,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실존하는 장소인 셈이다. 멋진 갑옷을 입고 첩과 방패로 무장한 중세 기사, 실제 카르카손을 찾는 관광객은 가족 단위가 많고 남자 아이들은 기사 복장을 하거나 최소한 칼자루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닌다. 놀이공원보다 더 신나고 흥분되는 곳이다.





여러 겹의 시공간이 혼재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사색적 산책

카르카손은 로마시대 이전부터 주거지가 형성되었던 고대 도시로 구시가지 시테는 2개의 성벽이 콧탈 성(Château Comtal)을 둘러싸고 있는 3층 방어 구조를 갖고 있다. 내부 성벽은 5세기(485년)에 서고트족(외리크 1세)이 만들었고, 성벽 안의 콧탈 성은 1125년 경 세워졌다. 루이 9세 때 스페인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성을 복원하기 시작하여 1285년 필리프 3세 때까지 외부 성벽을 완성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대성당과 성벽을 재건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벽으로 완성되었고, 긴 긴 시간 술한 공격을 모두 방어하며 단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을 만큼 완벽했다. 완벽했던 성벽은 더 이상 침입자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찾아오는 이들에게 묵묵히 굳건했던 흔적을 간직한 그 길을 내어주기만 하면 된다. 굳이 애써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오랜 시간 버텨온 성벽을 따라 걷는 길에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성벽의 강인함과 성벽 너머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공존한다. 고대와 중세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러 겹의 시간과 성 안팎으로 분리된 공간, 그 안의 삶, 이 모든 것이 얽혀 다차원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성곽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색적 산책이다.



TGV를 타고 중세의 시간 속으로

리옹이나 툴루즈에서 TGV를 타고 카르카손 역에 도착을 하면,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하게 뻗어있는 공원과 분수, 광장과 상점이 들어선 신시가지 생 루이 지구(Bastide Saint-Louis)를 먼저 만난다. 고풍스러운 중세 도시의 풍경은 언제 나타나 싶은 조금중이 생길 무렵 우드 강위에 놓여진 '옛 다리(Pont Vieux)'에 다다른다. 한 눈에도 이름처럼 오래된 옛 다리, 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 비로소 시테(La Cité Médiévale)라 불리는 구시가지로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거대하게 드러나는 성벽과 50개가 넘는 별갈고 파란 뾰족탑의 조화로운 모습은 설렘 가득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토록 완벽하게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성 안에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이 빼곡하게 들어사있다. 지나치게 관광지화 된 모습이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시테의 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호젓하고 고즈넉한 중세 성곽도시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도시 어디에서나 화성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있는 수원

수원 도심 한복판에 남북으로 기다랗고 넓찍하게 자리 잡은 화성은 지리적인 위치만 보어도 명실상부 수원의 심장이다. 수원 시내 어디에서라도 정안문과 팔달문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쉽게 만날 수 있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성을 바라보며 화성을 향하게 되는 것만 같다.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당쟁의 여파로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를 향한 극적인 효심과 원대한 개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설계한 계획도시, 정약용의 거중기로 대표되는 과학적인 축조... 화성의 수식어는 화려하다. 그러나 화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산을 끼고 흐르는 구불구불 아치형의 견고한 성벽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부질없다 느껴질 만큼 벽찬 감동에 휩싸인다. 군사적인 기능을 가진 성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답다. 장중한 4대문, 우리나라 유일의 공심돈(속이 비어 있는 벽체), 심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포루와 누각을 지닌 모습은 그 하나하나가 이미 예사롭지 않은데, 서장대에 오르면 멀리 장안문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화성은 새삼스럽게 근사하다. 화홍문 동쪽 높은 벼랑 위에 세워진 정자, 방화수류정은 또 어떠한가. 동북각루라는 다른 이름도 있지만 날아올라갈 듯 정교한 곡선을 가진 우아한 자태에는 방화수류정이 썩 어울린다.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정명도가 읊은 시구에서 따온 이름이다. 또 정조 역시 화성을 찾아 사적 풍류를 즐기며 화살촉이 꽃과 같다는 멋들어진 표현으로 고장원지를 느끼게 했다. 화성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적어도 세 번은 돌아야 한다. 성벽 위를 걸으며 경탄하고, 성벽 아래를 걸으며 새삼 실감하고, 마지막으로 성벽 바깥을 돌면서 화성을 바라보고 화성을 생각한다.





*Basilica di
San Francesco in Assisi*



**이탈리아의 푸른 심장,
어떻게 보아도 눈이 부신 아시시**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불리는 이름은 '아씨지'에 가깝다. 기분이 좋아지는 예쁜 발음이다. 발음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아시시는 중부 움브리아(Umbria)에 위치한 성곽 도시로 그 무엇보다도 감렬하게 떠오르는 것은 '성 프란체스코'이다. 그가 태어나고 죽은 곳, 그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기도 아시시는 이름만으로도 성스럽고 경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도시이다. 아시시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부터가 이미 천국이다. 흐린 날에 보아도 눈이 부시다. 수도자나 순례자가 아니어도 아시시에서는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묵을 수 있다. 오래된 집들과 성당, 울퉁불퉁 골목길마다 긴 세월의 흔적이 녹아들었다. 아시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간인 코무네 광장, 단정하면서도 웅장한 규모로 압도하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주변 등 아시시에는 수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언제나 친근하게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을 맞는다. 수도자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아시시의 성당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성스러운 기운이 충만해진다. 성곽도시로서의 아시시의 친가는 역시 마을에서 가장 높은 로카 마조레에 올라야 알 수 있다. 지그재그 골목길과 계단을 따라 꼭대기까지 오르면 아시시의 성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새, 로카 마조레에 도착한다. 그림처럼 펼쳐진 움브리아의 드넓은 평원과 어우러진 아시시 성곽의 모습은 차마 두고 내려오기 힘들 정도이다. 언제까지라도 내려다보고 싶은 풍경이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붉은 기와와 담홍색 벽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평온하고 아늑한 풍경으로 쉽게 중독되고 만다. 올려다보아도, 내려다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 보아도, 멀찍 보아도, 자세히 보아도... 아시시는 어떻게 보아도 눈이 부시다.

THE CITY OF SHIBAM IN YEMEN
THE HADRAMAUT VALLEY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 사막의 맨해튼 예멘 시밤

예멘은 우리에게 낯선 나라이다. '아랍의 봄' 이후 줄곧 내전중인 예멘은 테러와 전쟁 관련 뉴스로나 접하는 곳이다. 최근 콜레라까지 침범하여 1시간에 1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등 안타깝고 무서운 기사들로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알고 보면 친숙한 이야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예멘의 수도 사나는 천일야화의 배경이 된 도시이고,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왕'의 왕국이 있었던 곳이 예멘이다. 아라비아반도의 끝자락 홍해의 입구에 위치한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향신료가 오가는 '스파이스 루트(Spice Route)'의 길목으로 번영을 누렸고, 모카커피는 예멘의 모카(Mocha) 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멘은 커피의 산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프게 각인된 사건, 2009년 3월, 알-카에다 조직원의 자살폭탄테러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그곳이 바로 고대 영광유적도시 '시밤'이다. 시밤은 무려 2세기부터 존재했던 고대 유적 도시이다. 3세기 고대 왕국 하드라마우트의 수도였으며, 중세 시대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16세기를 기점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진흙벽돌의 고층건물들이 자아내는 풍경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다. 중세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5~16층의 높이를 가진 건물들이 500채가 넘게 모여 있다. 사막 한가운데에 진흙으로 지어진 빌딩숲,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아련한 느낌이다. 사막과 진흙빌딩은 그대로 하나가 되어도 좋을 색깔로 담채화와 같이 어우러진다. 그 와중에 드러나는 존재감은 확실히 신비롭다. 신기루와 같은 곳이다. 해가 질 무렵이면 도시 전체가 노을빛으로 물들어 더욱 우뚝하게 솟는다. 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곽 도시 시밤의 성문 출입문은 단 하나이다. 성벽 안은 외부와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2000년을 이어온 것들이다.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이 남치와 테러, 전쟁과 콜레라, 빈곤과 죽음으로 뒤덮인 곳에 위태롭게 놓여있다. 예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그 많은 생명들과 그 삶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기도한다. ☺



나의 세계유산 답사기
도심 속에서
느끼는
조선의 기품
종묘

宗廟
종묘

JONGMYO SHRINE
Parthenon of Confucianism



이정신 Lee Jung Shin



출 생 : 1991년 9월 15일
소속그룹 : CNBLUE
데 뷔 : 2010년 CNBLUE EP 앨범 [Bluetory]
작품활동
앨 범 : CNBLUE 7TH MINI ALBUM 7*CN, BLUEMING, 2gether 등
발 송 : 열거적인 그녀,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패션왕 비밀의 상자 등

최근 종영된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에서 나는 김철부 종사관 '강준영'역을 맡았다. 열거적인 그녀, 해명공주(오연서)를 짝사랑하면서도 듣지하게 지켜주었다. 이렇게 사극을 시작할 때면, 한 번쯤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있어 찾아본다. 그 중 '혼백'이 있다.

"내 혼백이 돼서라도, 너희들을 단죄할 것이다" 추성대군(김민준)이 이 말을 하면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무서운 뜻을 가졌다. 혼과 백은 유교적 세계관으로 사람의 영혼을 '혼', 육신을 '백'이라고 한다. 혼은 사당을 만들어, 백은 묘를 만들어 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조선 왕들의 혼을 모셔둔 곳이 '종묘'이다. 조선의 기틀,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종묘를 감찰부 종사관인 내가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묘의 입구를 지나자마자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았다. 눈이 정화되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다음, 길게 이어진 신로(죽은 왕과 왕비의 혼령이 다니는 길)가 보였다. 신로를 포함해 종묘의 돌은 모두 울퉁불퉁했다. 엄숙한 공간인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돌 하나에도 선조들의 심세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왕이 머무르던 '재궁'앞에 서니 호위무사 시절이 떠올랐다. 제례를 치내기 전 몸을 가지런히 하는 '어복욕청'에서 내 마음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역대 왕들의 신주가 모셔진 정전. 그 앞에 서서 웅장함에 한동안 말을 잊고 바라보았다. 넓게 펼쳐진 돌바닥, 정전, 산, 하늘이 조화를 이뤘다. 하늘의 광휘함이 돌계단에 머무르고, 푸른 산은 정전과 어우러져 조선의 기품을 보여주었다. 햇살은 길게 늘어진 처마를 따라 머물렀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조선 시대 왕들이 정갈히 제례 치내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자세히 보면 정전의 기둥이 모두 달랐다. 모서야 할 양이 늘어날 때마다 기둥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전의 기둥에서 조선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촬영지에서 보면 화려한 것과는 달리 종묘는 신전이기엔 화려하지 않고 단조로웠다. 색색의 무늬 대신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신 악귀를 막아주는 '잡상'은 존재했다. 단색이기에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고즈넉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놀일 수 없는 정전을 대신해 지은 '영년전', '정전'보다 규모가 작고, 모양도 달랐다.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정전과 달리 '영년전'은 중간이 솟아올랐다는 점에서 비교되었다. '영년전'은 웅장함 보다 고요함이 느껴졌다.

종묘는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생활하면서 경건함을 가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종묘에서는 모든 순간이 경건했다. 조선의 위상을 느끼고 싶다면 도심 속 조선, 종묘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종묘와 창경궁은 육교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없어 가보진 못했지만, 나중엔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종묘 제례 의식이 한다고 한다. 흔히 음악책에서 보던 '종묘제례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순간이다. 그때 다시 방문해 볼 계획이다. ⑦

66

조선 왕들의 혼을
모셔둔 곳이 '종묘'이다.
조선의 기틀,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종묘를 감찰부 종사관인
내가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을 입다

정체성을 가진 미적 가치의 진화



전통의 역사 HISTORY OF TRADITION

전통의복의 색과 문양, 그대로 회화가 되다

전통의복, 특히 동양의 전통 의복이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며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는 현상은 우연한 유행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동양의 전통의복은 '기모노'로 일찍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키요에(일본 에도시대 서민계층을 기반으로 발달한 풍속화, 주로 목판화 형식으로 반 고흐를 비롯한 많은 서양화가들에게 영감을 영향을 준 회화양식)와 기모노는 일본을 넘어 동양을 상징하는 수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모노를 펼쳐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화려한 색과 문양은 그 모습 그대로 회화 작품이 된다. 흔히 인도네시아의 전통의복을 '바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바틱은 원래 자바어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천'이라는 뜻의 '암바틱(ambatik)'에서 유래한 말로 염색 기법의 일종이다. 확실히 저항성을 가진 염료의 성질을 이용하여 천을 염색하는 기법으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발견된다. 바틱 기법으로 염색한 천을 사용하여 의복을 만들었기에 바틱은 전통의복을 지칭하는 말로 확장되어 쓰인다. 다시 말하자면 바틱 기법으로 염색한 천의 독특한 질감과 무늬가 인도네시아를 비롯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의 전통의복을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인도네시아 바틱은 의식과 패턴, 모티브의 상징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창의성 같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의복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패턴만으로도 태피스트리로서의 가치가 훌륭해 회화적 감상의 대상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옷은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의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역사와 가치관 그 자체이다. 국가와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통의복은 그 지역의 기후와 문화적 특성, 지역 사람들의 기호와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500년부터 이미 서양에 비단을 수출했던 중국에서 나무 두 개짜리 허술한 베를 사용했던 이름 없는 직공,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추위나 햇빛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던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전통의복에 대해 생각해보자.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유물이 아닌 전통의복의 이유 있는 재해석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복은 한결같이 간소화되었고, 전통의복은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유물이 되어갔다. 1900년대 폴 푸아레에 의해 유럽의 여성들은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가브리엘 사넬은 '간결한 것, 감촉이 좋은 것, 낭비가 없는 것'이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전통의복에 대한 재해석은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동서양의 경계가 사라져 한복, 기모노, 치파오 등을 모티브로 하는 세계적인 컬렉션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캐롤리나 헤레라, 샤넬, 드리스 반 노튼의 컬렉션 등에서 '한복'이 모티브가 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유럽에 유행한 시누아즈리 열풍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 미술 전반에 나타난 자포니즘(Japonism) 같은 현상도 전통의복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의복은 단순히 조상들이 입던 오래된 옷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전통의복의 선과 동양적 사상, 조화로운 선을처럼

흐르다 한복은 상, 하의가 구분된 치마저고리 형태가 기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한복의 형태는 소매통, 치마폭, 저고리의 길이만 약간씩 변했을 뿐 기본적인 형태는 신기하리만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모노가 선보다는 색이 강조된 의상이라면 한복은 선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다채롭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 둥근 소매와 직선소매, 저고리 밑의 치마말기 등, 한복에서는 곡선과 직선이 조화로운 선율과 같이 흐른다. 곡선과 직선의 미가 공존한다는 것이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한복은 저고리의 펼쳐놓은 모습만 보아도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반면, 기모노는 몸에 착용된 후에야 그 진정한 형태를 논할 수 있는 옷이다. 입기 전에는 장방형의 큰 한 장의 옷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옷을 입는 사람이 그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형태이다. 오비(기모노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띠)의 매듭에서 곡선이 가미되지만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옷이다. 서양복식이 재단과 봉재만으로 형태를 입체화하는 것과 달리 동양의 전통의복은 평면적이다. 평면적 구성의 옷을 입체적 체형을 가진 사람이 입음으로써 비로소 존재가치와 생명력이 부여되고 자연스런 모습으로 연출된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적 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치관과 제도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바느질을 하지 않는

옷, 사리 전통의복과 관련해 남아있는 정보가 알려주는 것들은 흥미롭다. 그 중에서도 의복이 신분과 직책을 반영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만이 입을 수 있었던 로마의 토가가 그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분과 직책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신분이 구분되고 따라서 인도의 전통의복 '사리'는 카스트를 반영하는 수단이 되었다. 힌두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카스트는 일종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인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신비스러운 사리에 숨겨진 카스트의 가치관은 '정'과 '부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깨끗하지 못 한 것인가, 그 기준은 바느질이다. 바느질을 하지 않은 옷이 정한 옷이요, 의상에 흠집을

내는 바느질은 옷의 영혼을 손상시키기에 바느질을 한 옷은 부정하고 천한 옷이라고 여긴다. 바느질을 전혀 하지 않은 커다란 한 장의 천을 몸에 두른 것이 사리이다. 너비 1m에 길이 5-6m의 한 장짜리 천(원래는 천의 규격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어 너비 1.1m에 길이 5.25m)으로, 그 천을 몸에 둘러 그토록 신비로운 맴시를 내는 것이다. 한없이 이국적이고 인상적인 풍경이 되는 아름다운 사리를 입은 인도 여인들의 모습에서 바느질을 하지 않는 옷으로 반영된 카스트의 엄격함을 읽을 수 있다.

예술작품 속에서 빛나는 전통의복의 상징성

신경숙의 소설 '리진'에는 한복, 특히 공녀의 복식을 묘사한 장면이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옥색저고리와 네 폭의 남색치마를 입고 금천교 위에서 내려오는 리진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2003, 이재용)'는 한복의 매력이 영화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종일관 스크린을 가득 채운 수십 벌의 한복은 시선을 압도했고, 한복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했다. 이혜순의 한복과 디자이너 정구호의 아트 디렉팅으로 한복의 미적 이미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 흰색과 빨강, 누빔과 금박, 노랑과 보라, 빨강과 청록 등 보색대비는 물론이거니와 회색 기와의 선과 어우러진 숙부인의 겸정한복은 모노톤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성향은 물론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배색, 저고리와 치마의 폭을 달리하여 의상이 인물의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끌어낸다. 영화 '화양연화(花樣年華, In The Mood For Love, 2000, 왕가위)'에는 수십 벌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파오가 등장한다. 장만옥의 늘씬하고 기품 있는 몸매에 힘입어 치파오는 더욱 고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스크린을 지배했다. 영화 '색, 계(色, 戒, Lust, Caution, 2007, 이안)' 덕분에 치파오의 색시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기도 했지만, 치파오는 입는 사람의 몸에 꼭 맞게 맞춰 입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렸지만 완벽하게 드러나는 옷이다. 치파오가 지금과 같은 실루엣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전통적인 치파오는 헐렁한 형태로 몸매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봉건주의 시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관습에 묶여 있었던 여성의 의복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내외적인 표현양식과 기법들을 점차 흡수하여 아름답고도 독특한 복장 양식을 창조해 냈음을 보여준다.

*Inspiration, Beauty and Dignity
from within cultural traditions,
heritage and pride*





1



2



3



4

변화하는 시대상을 흡수하는 전통의복의 주제성과 정체성

치파오는 원래 만주족의 의복으로 서양문물 도입 이후 상하이와 홍콩, 항저우 등지에서 유행을 겪지 않고 드러내는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아오자이' 역시 원래는 넉넉한 품이었던 것이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달라붙고 양옆이 더진 형태로 변화했다. 제국주의를 겪으며 열강의 간섭으로 인한 비자발적 변형도 있었지만, 서구문물과 사상을 주체적으로 도입하고 흡수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전통의복의 형태가 발전되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봉건주의 계급 사회에서 억압되어 오던 복식문화가 해방되어 제약이 풀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의상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고 복식의 유행이 생겨났다. 전통의복이 보다 자유로운 복식양식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태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는 독립 국가로 비교적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독자적인 의복 문화를 유지한 나라이다.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전통의복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자 국가에서 전통의복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입도록 권장하는 등 독립국가로 지켜온 전통의복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일상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 전통의복의 흔적과 가치

전통의복은 더 이상 일상복이 아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면 금박 은박이 박혀있는 한복을 꺼내 입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 입는 옷으로서의 추억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모노는 한복보다 활용도가 높아 친숙한 옷이다. 전통의복이나 장례식, 결혼식은 물론이고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성인식에도 전통의복을 입는다. 봄에는

하나미(꽃구경), 여름에는 하나비(꽃놀이), 작은 축제 등을 즐길 때에도 유카타(주로 목욕 후나 여름에 입는 줄걸의 면으로 만든 기모노)를 입는다. 고가의 기모노에 비해 저렴하게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유카타는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려고 싶어 하는 목록에 들어간다. 베트남에서도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전통의복을 입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덕분에 아오자이를 입고 농non(삿갓 모양의 베트남 전통모자)을 쓴 여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베트남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모노를 빌려 입거나 유카타를 사오고, 중국에서는 치파오,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를 맞추려고 치수를 재는 것은 여행의 즐거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복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최근 고궁이나 유적지, 한옥마을, 민속촌과 예술촌 등에서 한복체험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주목을 받으며 친근해지고 있는 한복이 더욱 반갑다. 전통을 체험한다는 특별한을 부여하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마주하는 전통의복의 흔적도 있다. 해변에서 비키니 위에 두르는 '사롱'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의 전통의상이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싱가포르항공 스텐더디스의 유니폼은 1970년대에 피에르 발랑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것이지만 전통의복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지안프랑코 페레가 디자인한 대한항공 스텐더디스 유니폼 역시 한복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전통의복의 흔적은 옷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전통의복의 흔적은 일상 속에서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감동으로 다가온다. 7

- 1 한복이 모티브가 된 'CAROLINA HERRERA' 컬렉션
- 2 싱가포르 항공 스텐더디스 유니폼
- 3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바티
- 4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





에곤 실레 어머니의 고향 체스키 크롬로프를 그리다

“나는 1890년 6월 12일 도나우 강변의 돌른에서 빈 출신의 아버지와 크루마우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에곤 실레가 자화상을 위한 메모에 직접 써 놓은 이 문장에 등장하는 크루마우(Krumau)는 체스키 크롬로프의 옛 지명이다. 그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동경했던 마을에 머물며 담아낸 마을의 풍경은 아름답고 다정하며, 그의 파격적인 화풍과 동떨어져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 보헤미아의 진주, 체스키 크롬로프의 비현실적인 풍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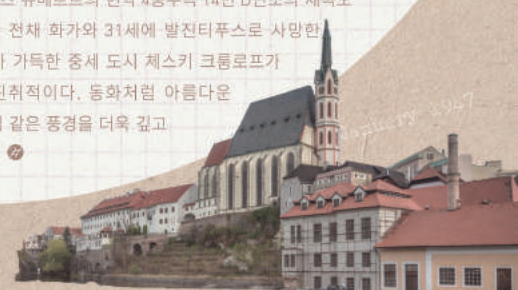
체코 프라하의 안델 역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반가량을 달리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야기자기한 동화 같은 마을, 체스키 크롬로프에 다다를 수 있다. 체코어로 '체코의 오솔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을에는 구불구불 골목길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 적당히 거칠고 적당히 반질거리는 돌바닥을 걸어 마을의 중심 광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보이는 파스텔 색의 건축물들은 마카롱 색을 닮아 그런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건물의 색이 달콤한 반면 고딕, 르네상스, 아르누보, 바로크를 아우르는 건물의 다양한 양식은 시대의 변천사를 느끼게 하는 비정함을 담고 있다. 건물의 색과 양식에서 뿜어나는 다채로운 감정을 즐기며 구시가를 걸다 보면 '이발사의 다리'에 이른다. 구시가와 체스키 크롬로프 성이 있는 라트란 거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 계속 올라가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불타바 강에 휘감기듯 있거 있는 마을의 모습이 한 눈에 담기는 순간은 저절로 탄성을 터져 나올 만큼 인상적이다. 뾰족 뾰족 오렌지색 예쁜 지붕과 하늘빛을 달고 하늘보다 더 파랗게 반짝이는 불타바 강의 조화는 현실감을 상실하게 한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비현실적인 풍경, 이대로 그림이 되어도 좋다.

• 에곤 실레, 육망이 아닌 사랑으로 그린 어머니의 마을 •

에곤 실레(1890~1918)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이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와의 나이를 초월한 친분과 예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클림트가 주축이 된 빈 분리파(Wien Secession)에 속하는 화가로 분류되어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장이다. 날카로운 연필로 그린 그림들에서 볼 수 있듯 소묘력이 뛰어나며 프로이트적인 분석을 더해 클림트의 표현주의적 표출을 더욱 발전시켰다. 강렬라 상상한 골격이 드러난 남자의 몸과 짙은 음영으로 대비되는 얼굴의 윤곽은 에곤 실레 자화상의 전형이다. 유난히 많은 자화상을 그렸고, 그 중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은 가장 뛰어난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에곤 실레를 대표하는 그림들은 예로틱하고 노골적인 육체의 과감한 묘사가 알찼다. 도발적이고 과감한 터치로 육체를 묘사하고, 금기를 깨고 죽음과 에로티시즘을 결합한 그의 작품들은 충격적이지만 매력적이다. 그러나 실레의 작품이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화풍이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그가 그린 도시와 마을의 풍경에서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사랑한 어머니의 고향 마을 체스키 크롬로프를 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따스하다.

• 체스키 크롬로프에 머문 자유에 대한 갈망과 평생의 연인 •

2016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에곤 실레: 육망이 그린 그림'은 에곤 실레의 감춰졌던 삶을 여동생 게르티 실레를 통해 현대기적으로 보여준다. 당당하고 열정에 가득 찬 무명 시절의 모습부터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클림트와의 만남, 그리고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킨 네 명의 뮤즈들과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크린을 전시회장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의 걸작들을 총망라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영화에도 체스키 크롬로프의 풍경이 등장한다. 작품 활동을 위해 어머니의 고향, 체스키 크롬로프를 찾은 에곤 실레는 낮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물놀이를 즐기면서 자연과 공감하며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며 억압된 욕망을 풀었다. 아름다운 체스키 크롬로프의 풍경을 배경으로 던져진 "육망을 자유롭게 풀어줘"라는 대사는 인상적인 율림이 된다. 실레가 1911년에 체스키 크롬로프에 잠시 정착했을 때 그와 함께 한 연인은 발리 노이질이었다. 실레 평생 단 하나의 사랑이라 불리는 그녀와의 이별을 상징하는 그림이 '죽음과 소녀'이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곡 14번 D단조의 제6곡도 '죽음과 소녀'이다. 28세에 스페인독감으로 요절한 천재 화가와 31세에 발진티푸스로 사망한 천재 작곡가, 그리고 보헤미안의 낭만적 정서가 가득한 중세 도시 체스키 크롬로프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고전적이면서도 진취적이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마을에 깃든 예술적 감성은 그림 같은 풍경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한다. 72



HEAD OFFICE
96TH MILLIKEN BLVD
PO BOX 200
LEWIS & CLARK FOUNDATION





느
—
리
게
걸
기



1353년부터 600여 년간 라오스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에서 가장 예술적인 도시이자 역사적인 도시다. 오래된 왕궁과 불상으로 가득한 동굴의 숫자도 많거니와 이들 대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불린다. 지리적으로도 칸강과 메콩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멋진 경관을 품었다. 오랜 시간 여행자들에게 '영혼의 감동제'라 불리던 이곳은 지난 1995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방문객도 늘었다. 하지만 어디 한 명 바쁘게 다니는 이가 없다. 이룬난 관광지는 하지만 관광지 특유의 떠들썩함이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사색하고 또 걷는다. 아마 이것이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일 것이다.



탁발

루앙프라방의 하루는 탁발로 시작된다. 거리가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이면 루앙프라방 곳곳에서 탁발 행렬을 맞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이 들린다. 바로 스님들에게 보시(布施, 자비심으로 불법이나 재물을 베풀)할 음식을 준비해 거리로 나오는 이들의 소리다. 통을 가지고 가는 스님들에게 음식을 주는 형식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탁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원이 곳곳에 있는 만큼 탁발 행렬 또한 루앙프라방 곳곳에서 펼쳐진다. 탁발은 수행자들에게는 간소한 삶을 살게 하고, 속인들에게는 공덕을 쌓는 기회로 그 의미를 갖는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중요한 의식으로 경건하게 진행된다. 동이 틀 무렵까지 진행되는 탁발 행렬은 루앙프라방 관광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왓 시엥 통 사원

루앙프라방에는 사원이 많다. 루앙프라방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원 중 가장 오래된 왓 위수나랏(Wat Wisunalat) 사원도 유명하지만 황금빛 지붕으로 유명한 왓 시엥 통 사원은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원으로 꼽힌다. 왓 시엥 통의 의미 자체가 '황금의 사원'인 것처럼 본당의 지붕과 벽은 온통 황금빛이다. 1560년에 세워진 이곳은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문화와 전통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로 꼽히는데 겹겹이 지붕이 이어져 땅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라오스 대표양식이다. (지붕의 개수에 따라 건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법당 뒷벽에는 불교와 관련된 설화를 색유리로 모자이크했는데 이 역시 충분히 아름답다.

왕궁 박물관

시사방 붕 왕의 궁전이었던 이곳은 전통적인 라오스 양식과 프랑스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건물이다. 루앙프라방 주민들은 이곳을 쫓겨난 왕족들의 원한이 서린 영혼이 머물고 있는 '헌티드 하우스'로 믿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에는 도시의 이름을 딴 '황금 불상 프라방'을 비롯해 과거 왕궁에서 사용한 물품과 외국에서 보내온 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왕의 집건실로 쓰이는 방의 벽에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거대한 벽화가 있다. 박물관 내부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으로는 입장 할 수 없다.





팍 우 동굴

팍 우 동굴은 라오스에서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메콩강 줄기에 있는 작은 동굴이다. 동굴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가는 동안 만나는 풍경도 멋지다. 이 작은 동굴이 관광명소가 된 까닭은 동굴 안에 모셔진 작은 불상을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때 주민들이 자기 집에 모셔둔 불상을 지키기 위해 팍 우 동굴에 하나 둘 모시게 되면서 지금의 천여 개의 불상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동굴 안으로 25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어둠으로 잘 볼 수는 없지만 동굴 곳곳에는 빼곡히 불상들이 들어차 있다. 플래시를 켜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불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 팍우동굴의 매력이지만 작은 손전등 하나 준비해서 가도 좋겠다.

광시폭포

루앙프라방에서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단연 광시폭포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려한 경관과 시원함을 선물하는 곳이다. 시내에서 40여 분 떨어진 거리, 입구에 도착하면 자연 그대로 우거진 숲에 도착하게 된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곰 박물관이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곰을 볼 수 있다. 입구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폭포는 정상으로 갈수록 에메랄드 물빛이 짙어지고, 상류에 도착하면, 낮은 산 정상부에서 폭포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만난다. 폭포 옆으로 난 길을 따라 10여 분쯤 오르면 폭포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다.

야시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천막이 이어져 만들어 내는 야시장의 풍경은 루앙프라방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오후 5시쯤, 여행사와 음식점이 몰려있는 시시방봉거리에 차량출입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하나둘 천막이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되는 야시장은 수많은 관광지에서 흔히 보이는 호객행위가 없다. 여유롭게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정가가 없다는 것도 야시장의 매력. 관광객만을 위한 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도 높다. 선물용으로 이곳 특산품도 인기지만,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림이나 염서 작품도 좋아 될 수도 후회 없다. 야시장의 명물인 꼬치류도 꼭 한번 맛봐야 할 루앙프라방의 맛이다.

푸시산

일몰명소로 알려진 푸시산은 일몰뿐 아니라 루앙프라방 전체를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으로도 유명하다. 정상까지 300여 개의 계단을 20분쯤 오르면 텃쎸시(That Choms)라 불리는 황금빛 탑이 있고 푸시산을 올랐던 반대길로 내려가면 여기저기 황금불상을 볼 수 있다. 푸시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루앙프라방의 마을과 시내는 그야말로 고색창연하다. 메콩강과 칸강, 그리고 사원들과 프링스퐁 건물들로 가득한 시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내는 경관은 절로 감탄사를 자아낸다. 나지막하고 붉은 지붕의 마을들을 휘감아 흐르는 메콩강 줄기가 루앙프라방의 오랜 역사를 품고 고요히 흐르는 모습은 모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⑦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포토에세이집

「시간을 거슬러, 우리 이곳에」 발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는 도시와 세계유산 그리고 지역주민의 모습을 담은 포토에세이집 「시간을 거슬러, 우리 이곳에」를 발간했다. 세계유산도시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에세이와 사진을 통해 각 도시들이 이뤄가고 있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을 담았다. 특히 세계유산도시기구 국제사진공모전 당선작 '네발을 위한 기도(최진성)'와 열두작품을 수록해 세계유산도시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함께 소개한다. 포토에세이집 「시간을 거슬러, 우리 이곳에」는 국문을 기본으로 영문판으로도 번역돼 다가오는 11월까지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행사장에서 다양한 도시의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헤시태그 정기구독 안내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HeCi Tag」를 구독하시려면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세요.

「HeCi Tag」를 온라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독신청 링크
(http://www.owhcap.org/han/page.php?mnu_uid=1043&cmd=4)



헤시태그 구독신청서 작성



구독신청서 스캔or사진촬영



구독신청서 메일전송
(hkad1770@chol.com)



구독완료

헤시태그(HeCi Tag) 구독신청서

헤시태그(HeCi Tag) 구독신청서에 동의여부(✓ 체크)를 표시하여 메일을 보내주세요.

성명(기관명)		주소		
휴대폰		E-mail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이용 기간	수집·이용하는 자	
<헤시태그> 책자 발송	성명·주소·전화번호	구독중지 시 즉시 폐기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이용 기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한국에드	<헤시태그>책자 발송	성명·주소·전화번호	구독중지 시 즉시 폐기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향후 <헤시태그> 발송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년 월 일 (서명)